

K-Hangeul

-과학, 창의, 독창성으로 본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

김유미(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1. 서론

21세기 초, 한국 대중문화는 전례 없는 속도와 범위로 세계를 휩쓰는 '한류(Hallyu)'라는 거대한 문화적 현상을 창출했다. 초기 K-pop과 K-drama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물결은 이제 K-게임, K-웹툰, K-푸드 등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며 국경을 초월한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그룹 BTS를 필두로 한 K-pop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능동적인 문화 전파자로 기능하며, 이들의 문화적 소비는 자연스럽게 그 바탕을 이루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확장 현황은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실제로, 해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며¹ 한국어 학습 열풍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대학과 중등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강좌 개설 또한 급증하는 추세이다. 한류의 파급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비영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자국어로 번역하며, 한국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는 한글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언어 문자를

¹ TOPIK(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43,718명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제 한국어 학습 수요 증가와 함께 IBT(인터넷 기반 시험) 및 토픽 말하기 평가 도입 등으로 응시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_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현황, 20241231, 국립국제교육원)

넘어, 글로벌 문화 콘텐츠를 해독하고 향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열쇠'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류라는 거대한 문화적 물결이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 체계적인 언어 학습으로 발전하는 '언어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현재까지의 한글 및 한국어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한류 효과'라는 외부적 동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부와 세종학당의 '정책적 노력'이라는 결과론적 접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한류가 외부적 요인이라면, 그 콘텐츠를 담아내는 문자 체계인 '한글' 자체의 내재적인 경쟁력에 관한 심층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의 세계화 흐름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즉, 한류의 물결이 잦아든 후에도 한글이 전 세계 학습자들에게 매력적인 언어 문자 시스템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본질적인 힘'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글이 지닌 세 가지 핵심 가치, 즉 과학성(Science), 창의성(Creativity), 그리고 독창성(Uniqueness)을 중심으로 분석 틀을 구축한다. 기존의 연구가 놓쳤던, 한글 창제의 원리와 구조적 우수성, 그리고 현대 디지털 환경 및 문화 창작과의 융합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한글이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을 여러모로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의의는 한글의 세계화 현상을 단순히 문화적 유행의 산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구조적 완결성과 확장성을 갖춘 'K-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화 자본으로 격상시키고, 그 지속 가능한 확산 모델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글의 창제 원리와 음소 결합 방식이 타 문자 체계 대비 지니는 '과학적' 우수성이 무엇이며, 이것이 현대 언어 학습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가?

2. 한글이 자모의 조화와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창의적' 문자 디자인 및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는 방식은 무엇이며, 이

는 현대 문화 콘텐츠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3. 한국어와 한글의 독창적인 결합 방식이 글로벌 소통 환경,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독창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제는 무엇이며, 이 힘은 지속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방법론적으로 문화학, 언어학, 정책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한글의 제자 원리(자음·모음)와 음절 구성의 과학성을 증명하고, 이를 로마자 및 타 표의 문자와 비교한다. 둘째, 문화 및 디자인적 접근을 통해 한글 폰트 디자인의 발전 양상과 K-pop 비주얼, 패션, 건축 등 현대 한국 문화 콘텐츠 내에서의 한글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창의적 가치를 입증한다. 셋째, 정책적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해외 세종학당의 운영 사례와 BTS 팬덤의 자발적 한국어 학습생태계를 분석하고, 한글 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향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2. 한글의 탄생과 과학적 설계 원리

2.1. 훈민정음 창제 배경과 인본주의적 동기

한글은 세계 문자 역사에서 그 창제자와 창제 원리, 반포일이 명확하게 기록된 유일무이한 문자 체계이다. 한글의 탄생은 1443년(세종 25년) 세종대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1446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창제 동기는 『훈민정음』 서문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나랏말싸미 듕귁(中國)에 달아 문자(文字)와로 쓰、口、스디 아니 흥、근쓰、이, 이런 전쳐(傳者)로 어린 백성(百姓)이 니르고져 흥、고배 이셔도 마츠、口내 제 ㅂ一들 시러 퍼디 몯 흥、고노미 하니라.”²라는 구절은, 지배층의 문자였던 한자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했던 백성들의 문맹과 언어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인본주의적(Humanistic) 애민정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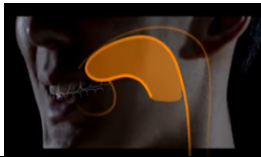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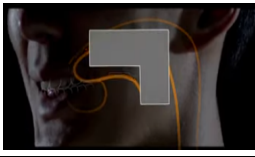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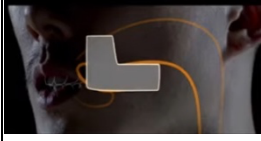
² 해석: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라.

세종대왕은 단순한 음성 표기 도구를 넘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소통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한글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창제 동기는 한글이 가진 근본적인 철학이자, 이후 한글이 문해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뛰어난 확장성을 보여주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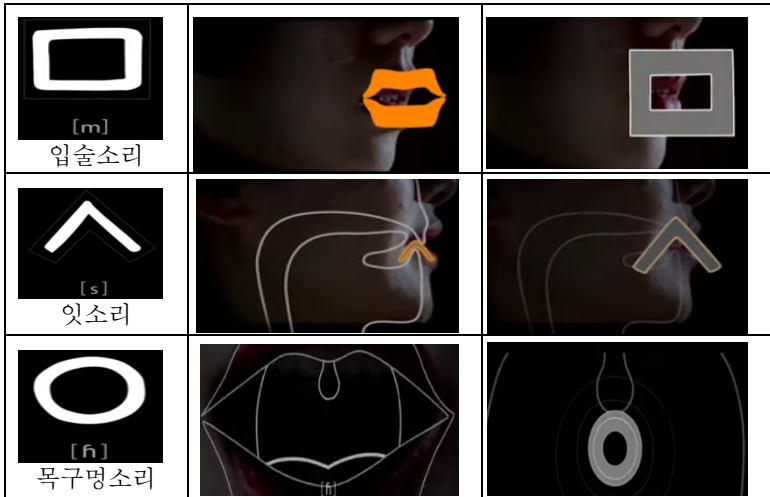
2.2. 발음 기관 모사와 음운학적 체계성

한글의 과학성은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에 상세히 기록된 제자 원리(制字原理)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글은 단순한 형태의 차용이나 임의적 조합이 아닌, 음운학적(Phonological)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문자이다. 첫째, 자음(Consonants)은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과학성을 갖는다. <표 1>에 서처럼 기본 글자 5개(ㄱ, ㄴ, ㅋ, ㆁ, ㅇ)가 각각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ㄱ),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ㄴ), 입술 모양(ㅁ), 이의 모양(ㆁ), 목구멍 모양(ㅇ)을 형상화하였다.

<표 1> 한글 자음 창제 원리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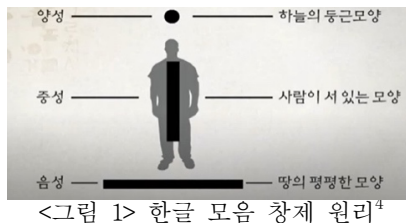
기본 자음	발음 기관	
 [k] 어금닛소리		
 [n] 혀소리		

³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창제의 원리, 2020 재판집 ver, YouTube



이후 이 기본 글자들에 획을 더하여(가획의 원리) 소리의 세기(음의 거센, 즉 유기음)를 나타내며 ㅋ, ㆁ, ㅌ, ㅍ, ㅊ, ㅌ 등 나머지 자음을 체계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한글의 형태 자체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음성 상징성을 내포함을 의미한다.

둘째, 모음(Vowels)은 우주 만물의 조화 원리를 담고 있는 천(天)·지(地)·인(人), 즉 하늘(●), 땅(—), 사람(┃)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결합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2>처럼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서 ‘●’을,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 그리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로 표현했다.



⁴ 핫클립, 한글에 과학이 담겨 있다? 한글 속 과학 원리, YTN 사이언스, 2021.

세 가지 기본 글자를 조합함으로써 ㅏ, ㅑ, ㅓ, ㅕ 등의 초출자(初出字)와 ㅗ, ㅛ, ㅜ, ㅠ 등의 재출자(再出字)를 생성하며 모든 모음의 발음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모음의 위치(양성모음, 음성모음 등)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후 언어학자들이 모음 체계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논리적인 틀을 제공한다.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Robert Ramsey)는 이러한 한글의 독창적인 창제 원리를 높이 평가하며, 한글을 "음성학적 특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가장 완벽한 문자"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2.3. 정보 처리 효율성 및 문해율 측면의 과학성

한글의 과학성은 이론적 체계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적인 정보 처리(Information Processing)와 학습 효율성(Learning Efficiency) 측면에서 뛰어난 실용성을 발휘한다. 한글은 알파벳처럼 음소를 표기하는 표음 문자이면서도, 자음과 모음을 모아 음절 단위로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통일된 형태를 구성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음절 블록(Syllabic Block)'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 처리의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규칙적 조합을 통한 모든 소리 표기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24개의 기본 자모만으로 수만 개의 음절을 생성하여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표의 문자(한자)의 암기 부담이나, 불규칙한 표기법이 많은 로마자 기반 언어의 학습 난이도를 획기적으로 낮춘다. 둘째, 빠른 학습 속도 및 문해력을 향상한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규칙만 익히면 되므로, 학습자들이 문자를 습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그 자체로 한글의 독창적인 설계 원리를 증명하는 과학 보고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문자의 뛰어난 학습 용이성 덕분에 한국은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Literacy Rate)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글의 실용적 가치를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이다.

셋째, 디지털 입력 및 확장성을 들 수 있다. 음소의 조합

으로 이루어진 한글은 현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키보드 자판 배열(두벌식, 천지인 등)을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음절을 분리하여 초성, 중성, 종성을 개별적으로 검색,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구조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연어처리(NLP) 시스템 구축에 있어 높은 효율성과 정확도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그림3>에서 보듯이, 키보드 Y, H, B부터 오른쪽은 한글의 모음이 배치되어 있고 T, G, V부터 왼쪽은 한글의 자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림 2> PC 키보드 자판(두벌식)

컴퓨터 키보드 두벌식 자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하는 자판의 수가 적어 익히기 쉽다는 것이다. 자음 14개와 자주 쓰는 단모음 및 이중모음 12개가 알파벳 26자와 대응을 이룬다. 시프트키를 함께 누르면 쌍자음 5개와 이중모음 2개(ㅢ, ㅟ)를 입력할 수 있고, 겹받침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반모음 및 이중모음은 자판 2개를 연속으로 눌러서 입력한다. <그림 4>의 스마트폰 키보드 천지인 자판은 'ㅣ', '·', 'ㅡ' 3개의 문자를 조합해 모음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ㅏ'는 ㅣ와 ·를 차례대로 누르고, 'ㅟ'는 ·, ·, ㅣ, ㅣ를 순서대로 누른다.



<그림 3> 스마트폰 키보드 자판(천지인)

즉 한글은 창제 동기의 인본주의적 철학 위에, 발음 기관을 모사한 과학적 설계 원리와 음절 블록화라는 독창적인 정보 처리 구조를 결합하여, 학습 용이성과 디지털 확장성이라는 현대적 경쟁력까지 갖춘 문자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성'은 한류의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지속 가능한 본질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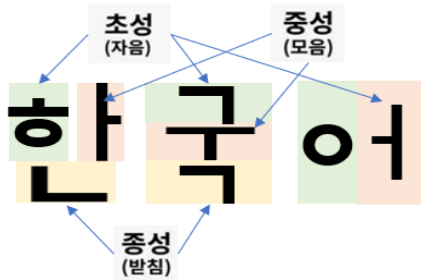
3. 창의성과 독창성의 언어학적 가치

문자 체계는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지만, 대부분 문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자연 발생적 진화와 수많은 사용자의 변형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라틴 문자, 아랍 문자, 또는 한자 등은 그 창시자와 정확한 창제 연도 및 원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어 1446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되었으며, 창제자, 창제 연대, 그리고 그 철학적·음운론적 원리가 완벽하게 기록되어 전해지는 세계 유일의 문자라는 독창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유일성은 한글이 단순히 필요로 발생한 '도구'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목적의식하에 설계된 '디자인된(Designed)' 문자 시스템임을 입증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기록된 제자 원리는 문자 체계가 과학적 음운론적 분석과 형이상학적 철학을 결합하여 창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창의성의 정수이다. 이는 한글을 단순한 표기 수단을 넘어,

한민족의 지적 유산이자 세계 문자사에 이바지한 독보적인 성취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한글의 구조적 독창성은 '음소문자(Alphabet)'의 장점과 '음절문자(Syllabary)'의 장점을 창의적으로 결합한 데 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개별적인 소리(음소)를 나타내는 음소문자이지만, 이 음소들이 '초성(자음), 중성(모음), 종성(자음)'의 규칙에 따라 하나의 사각형 틀 안에 모여 음절 덩어리(Syllabic Block)를 이루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한다. <그림 5>에서 3음절 한국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초성은 자음 ‘ㅎ, ㄱ’ 과 모음 ‘ㅏ’ 이다. 중성은 모음 ‘ㅓ, ㅗ’ 종성 받침소리는 ‘ㄴ, ㄱ’ 으로 구분한다.



<그림 4> 모여 쓰기(초성-중성-종성)

이러한 결합 구조는 라틴 문자와 같이 음소들을 선형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나, 한자와 같이 음절 단위로 복잡한 형상을 암기해야 하는 표의 문자 방식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 독창적 체계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우선 높은 음운론적 정확성이다. 음소 단위의 분해력을 통해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각적 효율성이다. 음절 단위로 묶여 시각적 밀도가 높아지므로, 글을 읽을 때 의미 덩어리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가독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 최적화다. 음소의 조합으로 음절을 생성하는 방식은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서의 입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적은 수의 기본 키(자모)만으로 무한한 음절을 조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문자 설계로 평가받는다.

한글의 독창적인 창의성은 역사적, 현대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사회적·미학적 파급 효과를 낳았다. 우선 창제 당시 한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명확한 목적으로 보급되었으며, 그 쉬운 학습 원리 덕분에 조선 시대 여성, 서민, 그리고 소외 계층의 문해율을 비약적으로 향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는 지식과 교육의 접근성을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모든 계층에게 개방한 '문해력의 민주화'를 실현한 기념비적인 사례이며, 문자 창조가 사회 통합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가장 창의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 다음은, 현대에 이르러 한글은 그 자체로 미학적 가치를 지닌 창의적인 디자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자음과 모음의 조형적인 조화, 음절 블록이 주는 안정적인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 그래픽 디자인과 시각 예술에 무한한 영감을 제공한다. 실제로 글로벌 브랜드들은 K-콘텐츠 포스터, 의류 디자인, 로고 등 다양한 마케팅 및 제품에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한글을 동양의 신비롭고 유행을 좇는 디자인 요소로 채택하고 있다.⁵ 이는 한글이 언어적 도구를 넘어, 전 세계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주목하는 창의적인 문화 자산(Creative Cultural Asset)으로서의 가치를 확립했음을 보여준다.

4. 디지털과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

한글의 음소-음절 결합 구조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높은 적합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적 우수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및 자연어처리(NLP) 분야

⁵ -유혜미, 박길중 작품, 함박웃음, 한글 조형 탐구, <한글디자인: 형태의 전환> 제74호, 국립한글박물관 소식지, 2019, 9.

-세종학당체, 세종학당재단 누리집.

-코카콜라 제로, 김동호 기자. newsquest 2024.02.21.

-구찌 티셔츠, 조선경제, 2023.12.16.

에서 한국어와 한글의 기술적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및 한국 IT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한국어 인공지능 번역 및 음성인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단어의 형태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변하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⁶ 특성을 갖는다. 즉, '밥'이라는 단어가 '밥을', '밥이', '밥도' 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AI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어간과 조사/어미 등으로 분리하는 형태소 분석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난이도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높은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정교한 형태소 분석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NLP 기술은 형태소 분석을 기반으로 다국어 모델 대비 높은 정확성과 깊이 있는 의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글은 11,172개의 완성형 음절을 유니코드(Unicode)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 모든 문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유니코드에서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 완성형, 조합형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한다. 완성형 한글은 초성 19자, 중성 21자, 종성 28자로 생성할 수 있는 11,172개의 완성된 음절을 U+AC00(가)부터 U+D7A3(힉)까지 배치하였다. 이 완성형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코드를 배치해 조합형 한글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특징을 이용해 간단한 수식으로 한글 자모를 분해하고 조립할 수가 있다. 각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 3가지 자모의 조합으로 인코딩되는 조합형 원리를 따른다. 이러한 유니코드 표준화는 전 세계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한글을 오류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수평·수직적 조합 및 음절 덩어리 형태 덕분에 글꼴(폰트) 디자인

⁶ 형태론적 특징에서 본 언어의 한 유형으로, 실질 형태소인 어근(root)과 형식 형태소인 접사(affix)의 결합으로 단어가 문장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이다. 알타이어족·우랄어족의 언어가 대표적이며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등이 이에 속한다.

에 있어 매우 높은 타이포그래피(Typography)⁷ 확장성을 갖는다. 기본 구조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미학적 변형이 가능하여, 기업 로고부터 고딕체, 명조체, 필기체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폰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그림 5> 유니코드(완성형 · 조합형)⁸

한글은 창제 원리의 과학성 덕분에 학습곡선이 매우 짧아 디지털 학습에 유리하며, 자모 24개만을 사용하여 모든 음절을 조합하는 방식은 쿼티(QWERTY)⁹와 호환성이 높아 디지털

⁷ 활자 서체의 배열을 말하는데, 특히 문자 또는 활판적 기호를 중심으로 한 2차원적 표현을 가리킨다.

⁸ <http://www.unicode.org/charts/PDF/UAC00.pdf>

⁹ 영문 타자기와 컴퓨터 키보드 배열의 하나인 쿼티(QWERTY) 형의 키보드는 첫 번째(맨 위) 영문자 줄에 6개의 영문자 키가 왼쪽부터 Q, W, E, R, T, Y의

터 입력 효율이 높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적은 터치 횟수로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천지인' 등의 입력 방식은 한글의 독창적인 결합 구조가 제공하는 기술적 이점이다. 이는 다국어 환경의 글로벌 IT 플랫폼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이 높은 디지털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경쟁 우위로 작용한다.

5. 문화 콘텐츠 속 K-Hangeul

한글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가치는 한류라는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며, 언어적 기능을 넘어 시각적 아이콘(Visual Icon)으로서 재해석되고 있다.

5.1. 한글 활용과 시각적 아이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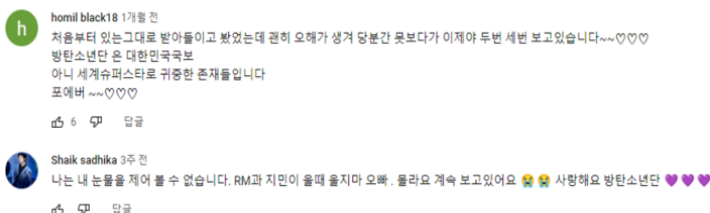
K-pop 그룹인 블랙핑크와 BTS의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K-드라마와 영화에서는 한글이 단순한 자막을 넘어 화면 전체를 장식하는 그래픽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는 한글의 기하학적 형태와 음절 블록의 조형미를 살린 것으로, 강렬하고 독특한 동양적 미감을 서구 문화권에 전달하는 시각적 정체성(Visual Identity)으로 기능한다. 특히, 세계 시장을 겨냥한 K-게임이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포스터 등에서 한글 로고가 주를 이루는 현상은 한글이 'K-콘텐츠' 자체를 상징하는 강력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각적 활용은 언어적 이해 없이도 한글을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로 인식하게 하며, 세계인들의 심미적 수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5.2. 팬 문화와 한글 학습의 자발적 확산

한류 팬덤은 한글 세계화의 가장 강력한 비공식적 동인이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습에 참여한다. BTS의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전 세계

순서로 배열되어 있어서, 퀴티라고 부르게 되었다. 퀴티 키보드는 전통적인 타자기의 자판 배열로 등장하여 컴퓨터 키보드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IT 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한국어 신조어(보라해)까지 만들어 그들끼리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팬 커뮤니티 내에서는 '팬자막(Fan Subtitles)', '가사 번역 챌린지', '한국어 말하기 챌린지' 등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자발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글은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 아니라,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커뮤니티 언어'로 재해석된다. 일부 해외 팬들이 자신의 몸에 한글 문신을 새기는 현상은 한글이 단순한 언어 도구를 넘어 정체성 및 취향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획득했음을 방증한다.



<그림 6> 한국어 응원 댓글

소셜 미디어(SNS) 시대에서 한글은 밈(Meme)과 언어유희를 통해 빠르게 확산한다. 짧고 간결한 음절 단위로 구성된 한글은 해시태그(#hangul)를 통해 트렌드 확산에 쉬우며, 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한글 문구들이 이미지나 짧은 영상과 결합하여 전 세계 네티즌 사이에서 소비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글의 '놀이성(Playfulness)'과 '재미(Fun)' 요소를 극대화하여, 비 학습자들에게도 한글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친근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6. 소프트파워와 한글의 글로벌 전략

한글이 지닌 과학성, 창의성, 독창성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발현되는 현상을 지속 가능한 문화적 영향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기관 주도의 한글 보급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세종학당(King Sejong Institute)¹⁰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보급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의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¹¹ 개소식은 표준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 파견 및 양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글 교육의 질적 표준화를 이루는 핵심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한류의 인기로 편승하는 것을 넘어, 한글을 국제적인 공용어 교육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세종학당은 현지 문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문화 외교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글은 관광 및 브랜드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글 디자인 간판 및 공공 시설물을 통해 도시 자체를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브랜드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글의 창제 원리와 미학적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접점이 된다. 기업 차원에서는 K-뷰티, K-푸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제품에 한글 표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한국 독창성'을 강조하는 프리미엄 브랜딩 전략을 구사하며, 한글이 곧 제품의 신뢰도와 문화적 매력을 높이는 부가 가치로 기능함을 입증한다.

한글은 그 과학적 구조 덕분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이는 한글이 언어 외교를 넘어, 전 세계 문자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문자 시스템 수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한글은 비단 한국 이민자뿐만 아니라, 언어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 간의 소통을 위한 공통의 기반 문자로써 활용

¹⁰ 세종학당재단은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https://www.ksif.or.kr>

¹¹ 교육부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에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다. 각국 교육제도와 한국어 수요를 분석해 국가별·권역별 맞춤 전략을 세우고, 해외 초·중·고교에서 한국어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지 교육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며, 국제사회에서의 문화적 영향력 역할을 확장할 수 있다.

7. K-Hangeul의 미래: 한류를 넘어 인류로

한류라는 문화 현상을 넘어, 한글이 22세기 국제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언어이자 문화적 자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 환경과의 통합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소수 언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유의 문자가 없거나, 기존 문자가 언어의 음운 체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짜아찌아족들은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뜬 과학적 창제 원리를 통해 거의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확장성과 정밀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한글은 문자를 갖지 못한 소수 언어를 위한 '대안 문자 시스템' 또는 '보존 모델'로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 문자 다양성 보존에 실질적인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



<그림 7>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¹²

더불어 AI와 메타버스(Metaverse)로 대표되는 가상현실 학습 환경은 한글 세계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및 통역 기술 발전은 한국어 학습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고, 한국어와 타 언어 간의 실시간 소통을

¹²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인 '짜아찌아족'이 고유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말은 있지만 고유의 문자가 없어 2008년부터 한글을 수입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원활하게 할 것이다. 또한,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 학습 환경은 학습자가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를 체험하고 몰입적으로 학습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가상 교사가 개인의 학습 패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한글 기반의 다국어 교육 플랫폼은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여 K-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다.



<그림 8> 메타버스 세종학당(세종학당재단)



<그림 9> 모두의 한국어(교육부)

22세기 언어로서 한글이 미래 언어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언어모델의 형태소 분석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국제 문자 표준화 기구(ISO/IEC) 및 W3C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호환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K-한글은 '한류'라는 문화적 동인에 의존하는 단계를 넘어, 그 과학성, 창의성, 독창성을 인류

보편의 지적 자산으로 공인받아 22세기 지식 정보 사회의 중요한 소통 도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8.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과학, 창의, 독창성으로 본 한글과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한류 확산 속 한글 주목 현상을 분석하고, 그 지속 가능한 힘을 한글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서 규명하였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넘어, 과학적 창제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학습 용이성과 음운론적 정확성, 음소-음절 결합 구조에서 비롯된 디지털 환경 최적화 및 타이포그래피 확장성, 그리고 문화적 콘텐츠를 통한 강력한 시각적 아이콘화 능력 등 과학성, 창의성, 독창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갖춘 글로벌 자산(Global Asset)임을 확인하였다. 한류가 외부적이고 가변적인 동인이라면, 한글의 이러한 내재적 우수성은 세계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본질적 경쟁력이다. 즉, K-한글은 일시적 유행을 넘어, AI 및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미래 지향적 문자 체계'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K-한글의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교육·기술·문화 통합 전략으로 세종학당과 같은 공식 교육기관에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강조하는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IT 기업은 한국어 AI 및 NLP 기술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동시에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한글의 '창의적 미학'을 활용한 디자인과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대중적 매력을 높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문자 다양성 보존을 위한 기여로 한글의 범용성을 활용하여 문자가 없는 소수 언어를 표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 국제 사회에서 단순한 문화 수출국을 넘어 인류의 언어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 '문명적 공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한글 세계화 현상을 문화적 유행과 언어학적 구조를 융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해외 학습자의 심리적 동기 변화나 한국어 교육 시장의 경제적

가치 등 정량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는 한글 학습의 인지 과학적 효과나, 한글 기반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국제적 시장 가치 등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K-한글의 가치를 다각도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진 외(2025), 인공지능 시대의 영어과 교육과정, 경문사.
- 강현화 외(2023), 한국어교육학 어디까지 왔나? 한국문화사.
- 김슬용(2017), 한글혁명, 살림터.
- 김신회(2010), 음정 단위 유니코드에 기반한 불규칙활용의 전산적 구현, 형태론 12-1, 23~48.
- 남기심 · 고영근(2014), 표준국어 문법론, 박이정.
- 신지영(2022), 말소리의 이해, 한국문화사.
- 윤호진(2016), 한류 20년, 대한민국 빅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박스.
- 이영호(2019), 훈민정음 해례본:국민 보급형, 달아실.
- 주미경 · 심영옥(2025), 전통색의 역사와 한류 콘텐츠화,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정한 외(2013), 한국어 정보 처리 입문, 커뮤니케이션박스.
- 허용 외(202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융합교육연구소(2025), 인공지능 시대의 융합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맘에드림.
- Steven Roger Fischer(2001), A history of Witting, London, UK. 강주현 번역(2020), 문자의 역사, 퍼블리온.

[미디어]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창제의 원리, 2020 재편집 ver,

<https://www.youtube.com/watch?v=Kpgm4XQNhzo&t=202s>

YTN 사이언스, 핫클립, 한글에 과학이 담겨 있다? 한글 속 과학 원리, 2021.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_hotclip.php?mcd=1213&key=202110211601451904

조선경제, 2023.12.16. 송혜진 기자

https://www.chosun.com/economy/market_trend/2023/12/16/VNLIYASJQJDOFGXCLKGSDTYSTU/

Newsquest, 2024.92.21. 김동호 기자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23>

뉴스캠프, 2025.10.07. 박은영 기자

세종시, 한글날 맞아 외국인 · 어린이 함께하는 우리말 축제 열린다

<https://www.newscam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6>

어린이동화, 권세희 기자 2023. 12.21

<https://kids.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446>